

## 제 9 장 사도 행전 Tape #8098

사도행전을 열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대로, 이제 9 장을 봅시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1 절 **“사울이,”** (앞의 7 장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사람,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자였고, 다시 8 장에서는 그가 스테반의 죽음에 가표를 던졌으며, 기독교계를 다 쓸어버리려고 개인적인 십자군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동자요, 리더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핍박은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유대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도망가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퍼지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지고 갈 대제사장의 권위가 담긴 문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이 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 있다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2 절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요청하니 이것은 만일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그는 사슬에 묶어 데려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3 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4 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 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니 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핍박하든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교회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신가요? 주님, 내가 당신을 섬겼나요? 나는 예수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이야! 하시니 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내가 믿기는, 스테반이 바울도 그 중 한 사람이던 공회회의에서 중요한 설교를 했을 때, 비록 바울이 진리에 대해 귀를 막고 있었을지라도, 스테반은 선언했으니, 바울이 비록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겠지만, 그것은 그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그가 철저히 히브리 성경구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스테반이 말하고 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구절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들이 진실이라고 인식했을 것이기에, 그는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상은 받아들이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그들은 혹독하게 내부의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대해 강하게 반동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관통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았고, 거기서 돌을 던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그는 돌을 던지기 위하여 옷을 벗었던 자들의 옷을 지켜 주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스테반의 말을 듣는 것, 스테반의 죽음을 보는 것, 바울이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했던 일을 보시고, 네가 하시니 채찍을 걷어차기가 고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읽겠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인, 이방인에게 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주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깨뜨리시려고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환상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면서, 주님의 명령은 ‘일어나 잡아먹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순 된 진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진짜 주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릴 수 있나요? 친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남편에게 그릴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은 주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옳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할 일에 대해 부인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다시 보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미래에 있어 바울을 위해 계획하셨던 것을 모두 한꺼번에 꺼내 놓지 않으시고, 단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7절**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나중에 그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해지지만, 헬라어의 차이로 보면, 그들이 소리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에, 그 일행들은 소음으로, 단지 소리로만 들었을 뿐,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놀랐으며, 말없이 서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 가니라.**” 훌륭한 경험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깊은 호흡을 뜻하는 말인데, 당신이 알다시피, 오직 험박하면서-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았을 때 말입니다, 아시지요, 믿는 자들을 반대하며 살기등등한 것 말입니다. 그 때 그가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그는 눈이 어둡고, 다른 손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등등하여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곳에 도착한 것이 됩니다.

**9절**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가운데 거기서 그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온 철학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종교적인 배경과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빌 3:4-9), 이 경험 뒤 대략 30 여 년 동안의 일들을 언급했는데, 내가 얻었던 이것들, 유대인으로서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의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자였으며, 종교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과 내가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탁월성을 위해서는 손실로 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한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성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는 진짜 대제사장의 깨끗한 머리털이 난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이단 종파를 짓밟아 없애고 스스로

명성을 남기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만나자, 그가 한 때 안에서 자신을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성에는 단지 해가 될 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삼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마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경구절을 다시 재조정하시어 전체적으로 정신적 개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 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야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의 섬김과 사역이 이야기되고 있는 중에서,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집사들의 사역과 섬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집사인, 스테반과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저 평범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역들을 행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고정된 형식으로 만들려고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분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울리는 곳에 약간 산뜻한 칸막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분은 우리들이 한 특별한 패턴에 그 분을 가두어 두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지를 노트해 보면, 그것들을 다른 방법들로 행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때는 그 분께서, 시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분이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 주시고, 가서 못에 씻으라고 하고서야,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가 그 분께 대해 한 고정된 형식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들로 그 일들을 행하셨으며, 바울도 우리에게 은사의 다양성과 실행의 다양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집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오직 우리 같은 자들, 그 분의 사역을 하는데 있어 보통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야는 단지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야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주님께 관계하고 있다는 것과 주님이 그에게 관계하고 계심의 자연적인 방법을 나는 좋아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대화[교제]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11 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삼일 낮과 삼일 밤을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곧은 거리라는 거리가 지금도 다마스쿠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마스쿠스의 주요 도로 중에 하나지요. 바울이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에 있었기에, 아나니야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12 절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야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

**늘,”** 그래서, 바울이 눈의 어두운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아나니야에게 환상을 주시어 바울이

시력을 받도록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13 절 “이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니,” 교회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마 27:52),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는 한데, 그들의 무덤이 열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거리들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 이 용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인, 당신들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 자격으로 카톨릭 교회가 당신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는 자요, 믿는 자라면, 내 생각에 찰스 성도는 그것으로 위대한 반지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과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4 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마도 아나니아도 바울의 배척 명단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15 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3 중의 사역을-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사역을 했고, 그가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여 네로 앞에 불러 나가, 네로에게 사역을 했으며, 또한, 그는 유대인들에게 사역한 만큼 이방인들 사이에도 역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기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 사이의 다리과 같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독특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와 히브리 문화 사이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으며,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도시에서 자유로웠고, 또한 강한 그리스 문화의 도시인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 14 년 동안은, 비록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이기는 하나, 성경구절들을 가르침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함께 자랐던 친구들, 놀이 친구들이 모두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가진 자로 그는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14 세가 되자, 그의 아버지는 가말리엘 문하의 히브리 대학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는 거기서 철저히 성경구절들로 교육되어, 히브리 정신을 알아가고, 바리새인으로 법과 성경구절들을 알아가며,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했기에, 그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어린 시절이 그리스 문화에서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있는 자들과도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나중에 그가, 나는 어머니의 복 중에서 구별된 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극히 처음부터 준비시키기 시작하셨고, 타문화 그룹으로 갈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로마에 있으면 로마인과 같이 하고, 내가 유대인과 함께 있으면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문화에도 어울릴 수 있었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 어울릴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다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문화적인 장애를 해소하고,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셨기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6 절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16 절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당할 고통들의 목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는 것들, 감옥에 갇힌 것들, 파선 당한 것들 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그는 그가 당한 고통의 큰일들을 말하고 있는데(고후 11:16-30),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지금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어리석게 말하거니와]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은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피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

고 혈뺏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보이셨다고 상상합니까? 다섯 번, 바울아, 네가 맞을 것이야, 39 번을 맞는 태장이야, 알았지? 네가 돌로 맞을 것이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할 일들을 그에게 보이려 한다고 하셨고, 내게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내 의미는, 만약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장래의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나는, 주님,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 절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잠깐 동안 자신을 아나니아의 입장에 놓아 보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제사장으로부터 권리를 받아든 자가 앞에서 있습니다. 그는 형제인 사울, 이 동료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하여금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매,”** 자, 이 지점까지 보면, 이 기록이 연관되는 한,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집사들 중에 하나인, 빌립조차도 성령님의 은사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고,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의 능력 부여주심을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단지 평범한 제자인 아나니아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도록 보내지고, 또한 성령님을 받도록 보내졌습니다.

**18 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을 받게 되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19 절** “음식을 받으며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그래서, 드라마와 같은 변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20 절** “곧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21 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던 자가 아니냐? **22 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성경구절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성경구절의 위대한 역사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구절에서 바울이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3 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여 의논하거늘,” **24 절** “그들이 숨어 있음은 사울이 알게 되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거늘,” **25 절** “이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불명예스러운 입성을 했고, 또한 성문에 매복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피하기 위해 더 불명예스러운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26 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 25 절과 26 절 사이에 3년이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고, 다마스쿠스를 떠나 아라비아의 시내 산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성경구절에 대한 전체의 이해를 위해 조정하실 시간으로, 한 3년 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었으며, 이 때가 놀라운 영적 계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만 두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그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하여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은 가르쳐지도록 자신을 맡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쓸 때, 그의 회심을 말하는데,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가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인, 교회의 설립 교부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어떤 것도 그에게 더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단체로 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오직 혼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성경구절을 인격적으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돌아간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5 절과 26 절 사이에는 약 3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나 그들이 그를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 자는 아니야! 아마도 그들은 그가 두더지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7 절**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밝히

말하니라.” 28 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29 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

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불쌍한 바울, 다마스쿠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이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허약한 자리에 있다는 아주 좋은 표식인데, 즉 당신이 그것을 실제로 논쟁할 수 없을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진짜로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을 대항하여 논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를 내고, 그를 죽이고 싶은데, 이는 당신의 위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절 “형제들이 이 일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 집으로 가세! 그래서,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왔습니다.

31 절 “그 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중에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이제 10 년을 만들려고, 바울은 다소에서 그 후의 7 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성에 미치면, 종종 그들은 즉시 사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성경구절로 학교 교육을 받는데 수년간을 전부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회심한 후조차, 그가 실제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10 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준비하는데 10 년이 더 필요하다! 주님의 의해 가르쳐진 10 년, 내면을 바꾸어 가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의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준비하는데 10 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취하시어 즉시 사용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지만, 바울의 문제는 재교육의 문제였으니까, 항상 재교육은 처음 교육의 시작보다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재교육에는 이미 잡았던, 가졌던 많은 것들을 먼저 모두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재교육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서 건너뛰니다. 그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 7 년 동안 파묻혀 있으니, 우리는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갑시다. 32 절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면, 당신은 벤 그리온 공항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룻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3 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마비중세로 팔 년을 침상에 누운 자라,” 34 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가 이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팔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자를 말입니다! 35 절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36 절 “이제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자가 베히션 행과 자선 행위가 심히 많더니,” 37 절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38 절 “룻다가 읍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 함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줄 것을 청하니,” 39 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겹옷과 옷을 보이거늘,” 그녀는 재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봉사로 특별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며, 귀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작은 야곱을 위하여 지은 이 웃웃을 보이며, 또 그녀가 만든 모든 것을 베드로와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40 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을 가실 때, 그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 분이 집에 도착하자, 거기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고, 거기에는 크게 통곡하는 자와 또 다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은 냉정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분을 비웃기 시작했고, 경멸했으며, 불쾌해 하기까지 했는데,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나가라고 하시며,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셨으나, 베드로와 요한과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데리고 들어가셨고, 그 분은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막 5:35-41). 그래서 베드로도, 그와 같이, 아마도 거기에 불신앙의 영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울고 있었고, 모두가 이런 가운데 있었음으로, 그들은 기적을 볼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예수님은 그 꼬마 소녀에게, 달리다 굶[소녀야 일어나라!]이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했으니, 매우 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왜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는가에 대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죽은 시체에다 대고 이야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 죽은 시체에 선언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을 때,” 41 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그녀가 여기 있소! 라고 말했으니 말예요! **42 절 “이 일이 온 읍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절 “베드로가 읍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9 장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이방인들까지 문을 열어 가고 있는 10 장에다 우리를 세웁니다. 10 장은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는 장이며, 물론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기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보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도록 일꾼을 준비하시니, 주님, 오늘날 당신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계시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매우 특별하게 야나니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를 인도하셨던 자리에서 그가 했던 것처럼, 당신과 관계를 갖기를 열망하고 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특별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갖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구절에 대한 배경을 갖는 것과 지식은 우리로 성경을 열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흠뜨림으로부터 멀리 이끌어낼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가실 것이고, 당신과 관계 속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에 열려 있을 것이고, 기꺼이 즉각적인 반응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얽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 성령과 선율에 맞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살피 주시며,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에 대해 당신의 마음에 일하시도록 아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복종이나 필요로 인해 또는 삶의 필요성처럼 말하는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투처럼,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일용하는 양식보다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교제)하는 것에 이끌어질 것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깨어 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분 자신에게로 이끌어 이 주간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분과 성령님의 일에 마음을 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주간 당신의 삶에서 일하신 것을 증거 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